

오피니언

월/요/광/장

한 희 원



얼마 전 제주문화포럼 회원들이 남도 문인들의 자취를 찾아 바다를 건너왔다. 해남 땅 황토빛 눈두렁 길을 걸어 찾은 김 남주 시인의 생가에서 제주 시민들은 낮은 목소리로 시인의 시를 읊조렸다. 김 시인의 집에서 산 하나를 넘어 찾은 고정희 시인의 방은 그녀의 정갈한 생활 모습이 생전 그대로 보존되어 모두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소설가 이청준이 잠들어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장흥의 낮은 들녘을 찾은 날 짙은 바다 내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소설가의 오랜 친구로부터 이청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청준의 무덤을 찾을 때는 낮은 들녘으로 바닷바람이 순간 거세게 불어왔다.

마치 축제의 현장처럼 벌고 조정래의 태백산맥 문학관에서는 그 생생한 기록과 규모에 놀랐고 '부용산' 노래에 얽힌 사연을 들을 땀 남도의 또 다른 한을 가슴에 담게 되었다.

하지만, 제주민들이 이번 기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곳은 무진 광주였다. 의항과 예항이라고 오래전부터 불리며

근현대사의 중요한 기로마다 언제나 진실의 편에서 역사를 주도했고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했던 광주기행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것이다.

필자는 광주 기행의 안내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광주의 정

광주의 김현승과 통영의 유치환

신을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 보여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스러웠다.

사전 조사를 해온 회원들은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한국적 인상주의의 선각자 오지호, 현대 광주문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다형 김현승, 국장 임방울 선생 등의 자취를 찾아보고 그들의 예술혼을 만나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 중 반듯하게 그들의 예술 자취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의재 미술관 뿐이었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다형 김현승의 자취는 무

등산과 호남신학대에 세워진 시비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다형이 떠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 하나 없는 상태며 화가 오지호의 걸작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미술관, 그리고 국장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및 상설공연장도 찾을 수 없어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정윤성·천경자·임직순·박용철 등 광주가 사랑했던 당대의 뛰어난 예술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미술·문학 기념관이 곳곳에 있었다면 외국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아 이래서 광주가 예술의 도시구나'

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웠다.

제임스 조이스가 조국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면서 쓴 '더블린 사람들', '율리시즈', 짧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어두운 이면까지 속속들이 고발하여 고향 사람들로부터 모진 협박과 비난을 피해 취리히로 망명한 후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더블린은 '조이스 산업'으로 일컬어질 만큼 조이스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가 가우디, 화가 피카소, 후양 미로를 배출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배출한 위대한 예술가의 자취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무릇 진정한 예술의 도시란 그동안 배출된 뛰어난 예술가의 흔과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현대적 산물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광주 예술혼의 바탕이 되는 정신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고, 많은 작품의 모티브를 주었던 남광주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이미 무언가를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았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제주문화포럼 회원들은 5·18 광주 민주화 묘역을 참배하고 무등산과 의재 미술관에 들른 후 저녁에는 광주 한 식당에서 남도 창을 듣고 광주의 가객이 부르는 부용산 노래에 흠뻑 취해 속으로 돌아갔다. 필자는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가슴속에 광주의 정을 오래도록 새기기를 기원했다.

더불어 통영 유치환 문학관을 찾았을 때 필자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청마 유치환 시인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접하고 흠뻑 감동받았던 것처럼, 내 고향 광주에서도 존경하는 시인 다형 김현승의 향기를 문학관 등 곳곳에서 느껴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서양 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명신대 '철퇴' 부실 사립대 퇴출 계기돼야

교과부가 적발한 순천 명신대의 불법과 부정은 '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족벌 경영에 교비 횡령, 학점장사, 신·편입생 편법 선발 등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한 '부실대학의 전형'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곳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대학'이란 간판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여안이 병병할 정도다.

교과부 종합감사에 따르면 명신대는 설립 때부터 엉터리였다. 대학설립인가 때 재단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설립자 이씨는 대학 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빼 쓰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비 12억 원을 횡령한 뒤 이를 담보로 14억9000만 원을 대출받아 빚계좌를 채워 넣기도 했다.

학사 관리도 부실투성이였다. 명신대는 입학정원을 초과 선발한 뒤 편입생이 학과를 옮기는 것처럼 전과(轉科)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출석

기준에 미달한 학생 2만2천여 명에게 학점을 줬다.

또한 설립자 이씨 일가는 이사장, 총장, 부총장, 총무처장 등 요직에 앉아 등 록금 등 교비를 '쏟아붓' 쓰기도 했다. 심지어 설립자 이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퇴직 후 차량 유류비까지 지급받았다. 명신대는 교과부가 관리하는 13개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돼 있지만 학자금을 출 제한대학 23곳 중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만큼 대학 관리가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부정과 비리가 설립 때부터 10여 년간 지속돼 왔는데도 적발된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설립자 이씨는 대학 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빼 쓰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비 12억 원을 횡령한 뒤 이를 담보로 14억9000만 원을 대출받아 빚계좌를 채워 넣기도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지원은 명신대와 같은 부실대학의 퇴출이 선행돼야 월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번 명신대의 감사 결과가 부실 사립대의 퇴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카보' 임원 도민 혈세로 역대 연봉 받다니

F1(포틀러원)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가 임원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자본금이 잠식되고 기능마저 대폭 축소된 카보가 여전히 임원에게 역대가 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게 짝이 없다.

카보의 임직원 19명 가운데 대표이사는 7300만 원의 급여와 3000만 원의 직급 보수수당 외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 받고 있어 1억 원이 훨씬 넘는 액수다. 재무본부 부사장의 연봉도 1억 원에 이르며 건설본부 부부장은 6개월 계약직으로 5000만 원에 달해 연봉으로 치면 1억 원을 받는 셈이다. 카보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경주장 관리소장도 연봉이 8000만 원이라고 한다.

지금 카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자본금 600억 원조차 바다나 도민의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역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니 카보가 재정신인가. 전남도는 F1으로 인해 빚투성이다.

지방채 발행만도 900억 원에 달하고 경주장 추가 공사비나 대회 운영비도 마련할 길이 없어 빚을 내야 할 형편이다. 급한 F1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주장 공사비 1025억 원과 대회 운영비 780억 원 등 1805억 원이 필요하나 확보 예산은 국비 200억 원과 전남도 자체 예산 475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카보가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카보는 조직위가 확대되면서 대외교섭업무와 경주장 운영에 관한 업무만을 맡는 등 역할이 축소됐고 올해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에 대한 협상도 실패하는 등 성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카보 측의 방만한 작태는 무엇보다 전남도의 안일한 관리에 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도 통제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전남도와 카보는 당장 임원들의 임금 조정에 나서야 한다.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법조칼럼



서종표

지난해 말 대학입생에 대한 항소심 국선번호를 맡게 됐다. 피고인은 모두 4명이었는데, 나머지 3명은 교수들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수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를 토대로 대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했고, 재단 측에서는 이 교수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

나 함들었겠는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법정 증언이 이어졌고, 수회에 걸친 공판기일 동안 심도 있는 심리가 이뤄졌다. 피고인들은 학원정상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한 행동 때문에 그동안 재단 측의 끈질긴 불이익처분으로 매우 힘든 날들을 보냈다.

또 수년간 이어온 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다. 취직의 심금을 울리는 최종 진술이 이어졌다.

한 교수는 "내 아들이 이 사건 시작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 참 좋은 일을 해서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이제는 나에게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라고 말합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6개월간의 기나긴 변론이 종결됐다. 마지막 진술을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법정에서 참느라 힘이 들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어떠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최후 진술이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날이 됐다. 재판장은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당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허뿔없이 울었다.

그동안 학원과 교수 및 학생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들의 대학과 학생을 위한 열정이 담겨져 있었다.

이 판결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작으나 마 위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기고



도산

불가(佛家)에 오종대는 명심불망(五種大恩 銘心不忘)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5가지 큰 은혜를 마음에 새겨 잊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5가지 은혜란 첫째 조국의 은혜, 둘째 부모님의 은혜, 셋째 스승의 은혜, 넷째 중생(시주)의 은혜, 다섯째 벗의 은혜가 그것이다.

흔히들 '빛지고 못산다'느니 '빛은 약보다 무섭고 독보다 독하다'는 말을 한다. 얼마나 빛독촉이 무서웠으면 새벽에 아반도 주까지 했을까를 생각하면 위의 말이 어는 정도 공감이가 간다. 옛날 농경사회(農耕社會)문화에서 일 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건만 가을에 추수를 하자마자 모두 빛쟁이들이 가져가 버리면 대저 얼마나 허탈

빛과 은혜

하고 분했을까? 그 빛쟁이가 나라님이라 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편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 하였으며 비록 친한 사이일지라도 빛보증을 서지말라고 당부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빛보증 얘기가 나오니 필자의 어린 시절 속가(俗家)의 부모님 생각이 난다. 항상 남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모친(母親)은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 한때 여기저기서 일해도 모르는 빛쟁이들의 성화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겪은 슬픈 아픔 때문에 급기야 아버님은 큰 용단을 내리게 되었다. 결코 보증을 서지 않으리라는 결심과 함께 자식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 형제들끼리는 더욱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보증을 서게 되면 결국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정(人情)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에 휘말리게 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파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차라리 힘닿는 대로 그냥 돈을 주는 것이 낫다. 친구나 형제간에 절대 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얼마나 뼈아픈 경험을 하셨으면 당신의 유혹처럼 자식들에게 당부하셨겠는가. 어쩌면 이 말씀 한마디가 당신 스스로에게도 평생가 되셨을지 모르겠다. 그 후로는 보증이나 빛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칠남매의 모임인 한울회(한울타리회)에서도 아직까지 형제간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다.

돈이란 좋은 것이다. 돈을 한글로 써놓고 뒤집어 보라. 곧(good)이 되지 않는가.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돈을 만유의 대상은 아니다. 돈을 어디까지나 관리의 대상일 뿐, 돈을 믿다가 패가 망신(敗家亡身)하고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를 무수히 보아왔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 줄 생각을

하지 말라. 돈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일 수 있어서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형제간의 우애도 멀어지게 하기 십상이다. 대신 그 돈을 자식교육에 투자하거나 자식들 앞에서 돈 쓰는 법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유태인의 교육지침서인 탈무드의 교훈처럼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어망(魚網)을 주라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또한 빛과 은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빛은 값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은혜는 한 번 입으면 갚지 못한다. 만약 어떤 친구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천만 원을 주었다면 그 친구에게 천만 원의 빛은 값을 수 있겠지만 그 친구의 은혜는 쉽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은(報恩)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도 재해석되어야 한다. 보은이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지은(知恩), 은혜를 알고 감은(感恩), 은혜를 느낀다는 뜻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상살이가 어차피 빛을 지거나 빛을 놓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빛지고 살지 말고 빛놓고 사는 보시의 삶을 살다가, 자비보시가 법의 으뜸이라는 말도 있지 아니한가.

(광주 대각사 주지)

無 等 鼓

나와 우리를 동일시하거나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한국인 특유의 우리주의(weism)는 가부장적 집단주의와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의 문화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있다. 효제충신(孝悌忠信)을 바탕으로 수백년간 이어온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라는 것이다. 혈연·지연 중심의 소집단주의나 패거리 문화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다른 해석도 있다. 다원적이면서 하나인 '우리'가 만들어낸 공동체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덩그러니 얽혀 더 큰 하나로 모아진다는 주장이다. 가족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만큼 나라를 사랑하며, 세계질서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인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레·품앗이 등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그 반증이다.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수많은 사회문제,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 지역사회의 대형행사 등 공공의 문제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원봉사자(Volunteer)들이 늘고 있다. 지역마다 자원봉

사센터가 생겨 나눔을 이끌고 있다. 대형 국제행사를 앞둔 광주·전남에서 이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그 성과가 놀랍다. 여수세계박람회에는 목표의 3배에 가까운 3만8000명이 등록했다. 해외에 수백년간 이어온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라는 것이다. 혈연·지연 중심의 소집단주의나 패거리 문화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지난 5월 마감된 영암 F1 자원봉사자도 경기장 안내, 주차 관리, 통역 등 8개 분야에 1086명이 응모해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9년 기준 19.3%로 30~50%대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5

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에도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 민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公德(公德)이다. 대형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도 더 많은 봉사자의 발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자원봉사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원 안팎이지만 일부 캠프는 수십만 원을 넘기도 한다. 특히 해외 영어캠프의 경우 수백만 원을 호가해 자칫 참여 학생들간 계층에 따른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동심을 멍들게 할 우려도 다분하다.

캠프 참가자 대부분이 학생인 만큼 사치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캠프보다는 저렴한 캠프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경제적, 지적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각종 사회단체와 관광사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승정1동

농어촌 학생 참여하는 청소년 여름캠프 늘려야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캠프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들이 잠깐이라도 교과목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자립심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자연애와 개척정신, 극기심, 지도자 역량 배양 등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갈수록 이기심이 만연되고 개인주의

가 광배해지는 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이 단체 생활에 적응하고 양보심과 타협심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대부분이 도시학생위주로 되어 있어 농촌의 자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대개 2박3일에서 3박4일 일정에 10여 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